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4.00원 하락한 1,313.40원에 마감

19일 환율은 전일대비 4.00원 하락한 1,313.4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60원 상승한 1,318.00원에 개장했다. 개장 이후 네고 물량 등에 하락세로 전환한 환율은 유로화 및 위안화의 강세에 연동해 하락폭을 확대하여 1,313.4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점심시간 이후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추정되는 역외 매도에 낙폭이 확대되었다. 달러 인덱스도 107.2선대로 하락하였다. 장중 변동폭은 10.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52.50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18.00	1319.30	1309.00	1313.40	1314.9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54.32	955.92	948.54	952.55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36.04	1348.75	1328.70	1342.96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2	-2	-5.85	-13.09
결제환율(수입)	0.2	-0.82	-4.79	-11.21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유로화 반등 및 위험선호 회복에...1,300원 중후반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4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13.40원) 대비 7.95원 하락한 1,305.00원에서 최종 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유로화 반등 및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따른 달러화 약세에 하락이 예상된다. 유로화는 ECB의 첫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와 러시아의 21일 가스관 가동 재개 소식에 연이어 반등하였다. 또한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달러화 강세와 물가 급등에도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다는 발표에 뉴욕증시가 일제히 반등하는 등 글로벌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은 금일 환율 하락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은 최근 4거래일간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천억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수하였다.

다만, 결제수요와 저가 매수 유입 등은 하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00.00 ~ 1309.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84.49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7.95원 ↓
	■ 美 다우지수 : 31827.05, +754.44p(+2.4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30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